

대기업은 팀의 규모도 커야 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최선책은 팀워크다. 또한 팀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제너럴일렉트릭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인 GE캐피탈의 최고정보책임자(CIO)인 짐 파울러의 소신이다.

대기업 CIO 입에서 나오는 조언치고는 생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짐 파울러 CIO는 직원 4,5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0명 이상을 총원할 계획이다. GE캐피탈의 총 직원은 4만 명, GE 그룹의 전직원은 30만 명이다. 아무리 조직 규모가 크더라도 일을 진척시키는 기본 단위는 '소규모 팀'이라고 파울러 CIO는 주장했다.

“개인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자기 일만 잘하는 천재를 찾지 않는다. 팀 중심 업무 환경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를 찾는다.”

파울러 CIO의 이 같은 지론은 공동 작업으로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하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는 1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에 제격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10명으로 구성된 팀 10개가 공존하면서 열 팀이 서로의 성과물을 참고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영자로서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런 접근법을 채택했다고 조직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내가 이끄는 직원이 4,500명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1,000명을 더 총원할 생각이다. 아웃소싱 의존도도 낮추고 있다. 우리에게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무척 중요하다. 이런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지나치게 많이 아웃소싱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회사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위기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출처 : 대기업이라도 소규모 팀 단위로 일해야 생산성 높다, Steve Rosenbush, Wall Street Journal, 2015.03.16

<http://kr.wsj.com/posts/2015/03/16/%EB%8C%80%EA%B8%B0%EC%97%85%EC%9D%B4%EB%9D%BC%EB%8F%84-%EC%86%8C%EA%B7%9C%EB%AA%A8-%ED%8C%80-%EB%8B%A8%EC%9C%84%EB%A1%9C-%EC%9D%BC%ED%95%B4%EC%95%BC-%EC%83%9D%EC%82%B0%EC%84%B1-%EB%86%92%EB%8B%A4/>